

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第 6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388年11月14日(月)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의件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의件 1面

(11時5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昌熙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지금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새로 補任되어 오신 委員님을 紹介하겠습니다.

金光一委員 人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一委員

(人事)

1. 委員會運營의件

(11時7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지난 5次會議때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聽聞會에 대한 의견을 調整하려 했으나 중간에 民正黨委員들이 不參함으로 해서 不得已會議을 一方的으로 進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으로서 심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도 委員會運營이 원활히 進行될 수 있도록 協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4黨幹事들이 幹事會議를 통해서 論議된 結果를 金仁坤幹事께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仁坤委員 오늘까지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事項을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金仁坤幹事입니다. 18日과 19日 兩日間 聽聞會의 證人은 選定되었음니다만 證言方法은 委員長에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이 問題는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음을 報告드립니다.

18日 證言順序로는 崔圭夏 全斗煥 金大中 李煥性的의 順序입니다.

19日 證言順序는 周永福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의 順序입니다.

다음으로 證人에 대한 主訊問者로는 崔圭夏씨는 統一民主黨에서 全斗煥씨는 平和民主黨에서 金大中씨는 新民主共和黨에서 李煥性씨는 民主正義黨에서 周永福씨는 平和民主黨에서 金相賢씨는 統一民主黨에서 鄭東年씨는 新民主共和黨에서 鄭基用씨는 民主正義黨에서 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主訊問者의 訊問時間은 한時間 以內로 하고 그리고 委員들의 訊問時間은 補充訊問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分 以內로 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追加 證人으로 採擇된 사람으로서는 高銀泰 鄭昇和 鄭鎬溶 鄭 雄 崔 雄 尹興禎 蘇俊烈 金玉吉 이상 8名입니다.

여기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느 黨에서 主訊問者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른 黨에서도 補充訊問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24日 25日 聽聞會에서 證言할 證人으로는 다음과 같이 選定되었습니다.

申鉉鎬 또는 鄭鎬溶 이분들은 民正黨에서

질충해가지고 두 분중의 한 사람을 하기로 하고 鄭昇和 李信範 韓尙錫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文書檢證問題에 대해서는 4黨幹事가 檢證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黨所屬 委員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國防部本部 文書研究室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檢證을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5日 즉 내일 釜山에 있는 文書保管所에 가기로 決定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먼저 委任 받아가지고 全斗煥 前大統領을 訪問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黨幹事間的 의견이 다른 관계로 해서 아까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平和民主黨의 辛基夏幹事와 新民主共和黨인 저와 두 사람이 12日 午前 10시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10時半頃에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紙上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래서 秘書로 하여금 응접실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안에 제시는데 만나줄 수는 없다 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심정을 표시하고 우리 個人이 온 것이 아니고 國民의 代表機關에서 더우기 特委에서 18日 꼭 나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곁해서 禮遇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안 만나준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요지를 전하도록 하고 그렇게 또 인제는 우리가 禮遇의 단계가 아니고 出席을 촉구하는 또 유감스러운 표시를 하는 의미로 왔다고 하는 소견도 전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總務處所管으로서의 資料提出要求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公文을 이미 總務處에 發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日 證人問題가 빠져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25日은 申鉉禧 또는 鄭鎬溶 중에서 한 분을 24日 안나오신 분을 그날 나오도록 하고 尹興禎 高銀泰 沈載哲 金宗培 이렇게 決定을 했습니다.

이상 미진합니다마는 그 동안의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事項을 報告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방금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4黨幹事會議에서 合意한 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金文元委員 異議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國民의 초점이 되어 있는 光州事態에 대해서 우리 光州特別委員會에 所屬되어 있는 委員들이 정말로 이 事件의 真相을 파헤쳐서 國民들의 疑惑과 憤怒를 풀어주는 데 一翼을 담당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歷史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聽聞會가 지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 존경하는 金仁坤幹事께서 幹事會議 合意事項을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몇가지 좀 저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감히 외람되이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8일에 열리는 聽聞會에서 全斗煥 前大統領 그 다음에 崔圭夏 前大統領 그 다음 李煥性 그 당시 保安司令官 그리고 金大中 平民黨總裁 이렇게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聽聞會라는 것은 格式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格式으로 어떻게 聽聞會를 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格式도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幹事 몇 분이 아까 全斗煥 前大統領을 방문을 해서 參席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全斗煥 前大統領께서 제가 보는 心證으로는 나오실 것같지가 않은 그런 心證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崔圭夏 前大統領도 얼마 전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公式적으로 표명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認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분이 안나오면 李煥性씨하고 金大中 平民黨總裁하고 두 분을 모시고서 證人을 모시고 質問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假定입니다마는 나는 두분이 나와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委員長께 제가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全斗煥 前大統領과 崔圭夏 前大統領께서 그 날 聽聞會에 나

오리라는 어떤 心證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께서 主導하시고 했으니까 心證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짚고 넘어 가면서 形式을 꾸며가도 꾸며가야 되기 때문에...

○委員長 文東煥 제가 答辯드리지요. 우리로서는 첫날 네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시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週日前에 미리 告知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告知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 나오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 이런 촉구에 대해서 前 두大統領께서 應하시지 않으신다면 國民의 간절한 촉구를 듣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週日前에 이미 告知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미 告知한 것이고 저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正式通知도 없는 것이고 하기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도록 촉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金文元委員 글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두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 당시의 光州事態의 「키」를 쥐고 있는 이분들인데 만일에 저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萬의 하나 全體의으로 떠도는 여러가지 心證으로 보아서 안나올 可能性도 있다고 하는 경우에 光州聽聞會의 效果的인... 國民들에게 정말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聽聞會가 되느냐 하는 그런 근심에서 여쭙어 본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잘 알겠습니다.

○金文元委員 그 다음 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正式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聽聞會를 어떤 식으로 運營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론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을 해서 全權을 委任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委員長께서는 特別委員會에 속해 있는 委員들에게 사전에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씩이라도 물어 보아 주셨으

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主訊 무슨 補助質疑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아까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까. 마는 崔圭夏씨는 統一民主黨이 主訊이 되고 全斗煥씨는 平和民主黨이 主訊이 되고 金大中씨는 新民主共和黨이 主訊이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한 방법의 聽聞會方法이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떤 基準에 의해서 이런 식의 聽聞會가 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덜 가는데 委員長께서는 제가 남들이 갈 수 있는 補充說明을 좀 해주십시오.

○委員長 文東煥 委員長에게 一任했다고 하지 않은 저로서도 4黨幹事와 충분히 協議해서 이것을 決定했습니다. 4黨幹事님들은 모름지기 各政黨하고 協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證人을 향해서는 첫째 代表委員이 나와서 質問하고 그 나머지 未盡한 것은 各黨에서 돌아가면서 質問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方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意見을 聽取하면서 幹事들하고 協議해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時間問題...

○金文元委員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方法에 대해서는 저는 異議가 있습니다. 異議를 提起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異議가 있으시면 異議가 있는대로 幹事會議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表決로 하기로 動議하신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異議가 있으니까... 그러면 表決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玉滿鎬委員 물론 마지막에 있어서는 表決로써 결정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건대 이 문제에서는 全體會議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意見이 구구할 때에는 幹事會議을 召集해서 결정하든지 미리 決定해야 하는데 主客이 顛倒되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式으로 하면... 몇사람이 모여 가지고 하려면 먼저 다 결정해놓고 나머지 이것은 뭐 豫算마냥 그저 손들고 兪소 通過했습니다. 이 式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무엇인가 討議를 하고...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다른 案이 있으면 案을 提起해 주세요.

○金文元委員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네분이 나오니까 네분이 나오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各委員들이 各黨 主訊이다 副訊할 것 없이 各黨 委員들에게 공정한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서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해서 質疑形態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가 누구는 누구에게 主訊이 있고 이런 것 보다는 各所屬 特委委員들에게各自的 시간을 똑같이 配當을 해서 順序의으로 물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어 이런 形式까지 밝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분 안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래 가지고 各自 委員들이 가지고 있는 意見을 開陳하고 特委委員들 다 누구나 地域代表이고 國會議員들 아닙니까? 憲法機關이고 하니까 다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20분이면 20分 30분이면 30分 다 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政治的인 見解도 있겠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어가 主訊은 누구를 主訊으로 하고 누구는 무슨 黨이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正式으로 말씀드리지만은 各自 委員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配當해서 거기 나오신 분들과 一問一答을 하든가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聽聞會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1時間이 되든 5분이 되든 3분이 되든 좋습니다. 그것이 좋은 方法이라고 저는 봅니다. 外國의 例도 다 그렇습니다.

外國의 例도 國會議員들 聽聞會하는 경우에는 다 各自가 말하고 싶은 것 다 주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主訊이 있고 副訊이 있고 그 다음에 質問이 있고 이렇게 되면 聽聞會가 오히려 亂雜해 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各自에게 시간을 주어가지고 順序도 따라서 거기에 네분 나왔으면 네분에 대해서 다 물어 볼 수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서는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 당시에는 이 분이 더 잘 알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하고.....

○委員長 文東煥 예. 알겠습니다. 말고루 나

누어 같은 시간을 配當하자고 하는... 幹事會議의 것을 동의라 한다면 改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우리 辛基夏委員이 幹事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십시오.

○辛基夏委員 방금 金文元委員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미 金委員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 4黨 幹事會議에서 서로가 意見을 開陳하면서 충분한 檢討를 거쳤습니다.

기실은 우리 委員會 委員들의 數가 28名인데 각기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訊問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도 訊問하기 힘들지 않느냐 더우기 우리는 第5共和國 非理調查特別委員會의 聽聞會過程을 지켜보았는데 거기에서 혹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우리 光州特委에서는 그 잘못된 점을 是正해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궁리한 끝에 各黨에게 일정한 質問時間을 배분을 해서 그 黨所屬委員들이 적절하게 配分해 쓰는 方法도 생각을 해 보았고 또한 各 委員들에게 얼마씩 고루 配分해 주는 方法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은 우리 特委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質問을 하는 분을 일용 主訊問者로 결정을 해서 그분에게 한時間정도의 範圍內에서 質問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委員들은 30分 정도의 範圍內에서 質問을 하면은 效果的으로 우리 特別委員會를 運營해 나갈 수가 있고 質問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黨 所屬委員이 먼저 質問을 하게 되고 어느 黨 所屬委員이 늦게 質問을 하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各黨의 입장에서 異見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證人別로 各 主訊問者 한사람씩을 配當을 받아서 일용 主訊問者라는 것은 제일 먼저 質問을 하는 사람의 의미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聽聞會는 모두 一問一答의 形式이올시다. 그래서 일용 各黨間의 異見을 調整하기 위해서 採擇된 어느 證人에 대해서는 어느 黨所屬의 委員이 제일 먼저 質問을 하고 또 다른 黨所屬委員들은 계속 順序에 따라서 30分 정도의 範圍內에서 質問해 나가면 效果的인 質問方法이 되지 않겠느냐 그

러한데 結論이 모아져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主訊問者가 반드시 優位에 있고 補充訊問을 하는 다른 委員들이 뒤에 늦추어져 있는 그런 면도 아닌 것이어서 이것이 가장 效率的인 委員會의 聽聞會 運營方法이다 그렇게 해서 決定된 것이니까 그렇게 諒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趙洪奎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趙洪奎委員 지금 聽聞會를 어떻게 運營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焦點은 金文元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삼스럽게 動議할 필요없는 基本的이고 常識的인 것입니다. 國會議員 누구나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다 아는 常識이고 문제는 效果的인 運營을 위해서 4黨幹事가 合意한데 대해서 따라 주느냐 따라 줄 수 없느냐 이 문제니까 4黨幹事 合意한 것을 우리가 따라줄 것이냐 안따라 줄 것이냐 이것만을 可否를 決定하세요. 各自 意見이 있을 수 있고 金文元委員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예요.

새삼스럽게 문제삼을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물어야지요. 다 공평한 時間을 갖고 자유롭게 다 하는 것이고 動議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金仁坤幹事가 幹事代表라 말씀하신 그 幹事合意事項을 이 委員會가 따라줄 것이냐 拒否하느냐 이것만 可否 決定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委員長 可否를 定하세요.

○委員長 文東煥 예, 民正黨에서도 한번 설명하시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니까...

○李敏燮委員 우리가 幹事會議에 委任을 하는 것은 거기서 충분히 討議를 해서 사실상 全體會議에서는 追認하는 形式으로 하도록 한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新民主共和黨의 경우 충분히 意見開陳이 서로간에... 折衷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1時間이고 30分이고 하는 얘기와 또 지금 主質問이다 補充質問이다 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質問者라는 表現으로 하면 補充質問이... 그러니까 어느 委員은 主質問을 하고 어느 委員은 補充質問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하고 또 하나는 같은 委員들이 그러면 質問하는 입장에서 누구는 時間을 더 갖고 덜 갖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첫번째에 자기 黨을 代表하든 또 他黨의 의견까지 收斂하든 해서 충분히 한 뒤에 좀 더 수월히 運營하기 위해서 補充質問 形式 그러니까 다른 委員들은 간단간단히 負擔없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時間 이내 30分 이내라는 것은 꼭 그 時間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내로 짧으면 짧을 수록 좋고 最小限度 그것은 넘지 말자는 하나의 그러한 基準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共和黨의 의견을 確認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發言하신 두委員의 의견인가 아니면 共和黨 전체의 의견인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전체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4黨幹事の 合意가 사실상 어려운 追認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改議를 한다면 主質問 補充質問없이 30分 이내로 一律的으로 하고 다만 첫번째가 質問者가 꼭 좀더 해야 되겠다 하면 한 10分 연장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첫번째 質問者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두번째 質問者한테 넘겨서 할 수 있고 速記錄에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改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共和黨側에서 들어주신다면 表決할 것이고 아니면 原案대로 表決하고 ...

○金文元委員 거기에 하나 더 붙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어보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平民黨의 主訊問者라 하면 반드시 누구를 앉혀놓고 처음에 해야 되느냐 하면 崔圭夏씨한테 반드시 主訊問者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해 놓은 것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平和民主黨의 主訊問者가 일례를 들어서 金斗煥씨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됩니까?

○李敏燮委員 제가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데 다만 質問을 할 때는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質問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各黨에서 서로

한다고 해서 서로 절충이 안될 경우에 運營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各黨이 安配해서 그 첫 質問을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黨에서 꼭 主質問者가 나와야 한다는 概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順序를 우리가 合理的으로 調整하기 위해서 어느 黨에서 어느 證人에게 하기로 이렇게 事前에 調整한 것이니까 主質問者와 補充質問者의 概念이 없으면 첫번째 質問者에게만 그렇게 시간을 예외로 10分 더 줄 수 있는 그런 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문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文元委員 글씨 나중에 말씀드린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主訊問이 어떻게 副訊問이 어떻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主訊問도 좋고 副訊問도 좋은데 문제는 반드시 첫번째 質問者가... 아주 定해 놓지 않았습니까?

만일 金仁坤委員이 主訊問者가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처음에 물어볼 때 이 네 분중에서 選定할 權限도 박탈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만 民主共和黨 代表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만 처음에 먼저 質問하라는 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民主的인 常識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討論의 基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李敏燮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제를 提起했으니까... 金文元委員님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黨이 어느 代表에 대해서 첫 質問者를 꼭 해야 된다는 基準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各黨의 幹事들이 協議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代表質問者를 어느 黨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는 얘기는 우리 委員長과 幹事에게 一任을 해주시고 추후에 黨內에서 그것은 충분히 意見收斂을 해서 折衷하도록 하고 그 順序만은 留保한 채 오늘 그 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發言權을 要求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차례차례 해봅시다.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金文元委員님 말씀하시는 趣旨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서로 證人訊問方法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金

文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날 證人 네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文公委 지난 번에 國政監査하듯이 委員들이 네 證人에 대해서 證言을 해 나가는 그런 方式을 假定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4黨幹事會議에서 合意될 때의 前堤는 네 사람이 첫날 證人을 나오되 한꺼번에 證言聽取를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證言을 해 들어가는 그런 方式을 前堤로 하고 證言聽取順序를... 訊問者順序를 決定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對質訊問이 필요하면 두 분 세 분 같이 證言을... 證言臺에 같이 앉도록 하고 지금 金文元委員께서 말씀하신 證言聽取의 方法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個別證人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訊問을 個別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前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合意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金光一委員 民主黨도 한 말씀...

○委員長 文東煥 예. 하세요.

○金光一委員 지금 문제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異議가 있다면 그렇게 處理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네명의 證人이 나왔을 때 어느 黨에서 맨 먼저 묻느냐 하는 문제가 黨의 利害關係라든지에 의해서 서로 먼저 하겠다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서로 먼저 묻지 않겠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個個의 證人에 대해서 누구부터 먼저 묻느냐 하는 順序를 정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아마 幹事會議에서 18日 19日 여덟 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4黨에서 한 분씩 맡아서 각 날짜마다 順序를 정한 것은 지극히 잘 되었고 이미 幹事會議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할 때 예를 들어 지금 異議를 提起하는 그 黨에서 무슨 異議가 있어서 정말 완전한 합의가 안됐다면 모르되 일단 합의가 된 이상은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그대로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어느 委員 한분이 異議를 提起하신다면 여기에서 可否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처음 묻는 사람에게 한 시간을

주느냐 다른 委員들에게는 모두 30分 주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李敏燮委員 말씀하신 대로 첫 質問者에게 한 10分쯤 더 준다든지 調整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質問者에게 조금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첫 質問者는 全般的인 事項을 많이 묻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論理에 의해서 무얼무얼 물어야 될 事項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묻고 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補充하거나 또는 反對의인 의미에서 訊問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주어도 되고 또 各黨이 적어도 最下 3名 이상 또는 無所屬은 물론 한분입니다마는... 이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만 하면 自己黨에서 이 부분은 甲委員이 묻고 못 묻은 부분을 乙委員이 묻도록 그렇게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委員長께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하나씩 결정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文元委員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떤 意思가 나올 때까지 委員長께서 發言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우선 첫 質問者가 반드시 누구에게 첫 質問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特別委員會 聽聞會의 權限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幹事會議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議決되는 것이 아니니까 첫 質問者가 반드시 누구에게 첫 質問을 해야 된다는 이런 制限의인 요소는 철폐해 주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뛰하는 것은 좋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여기에 改議가 正式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法節次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改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 계세요?

○金光一委員 동의는 무엇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이 동의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것은 改議인데 李敏燮委員이 다시 改議說明해 보세요.

○李敏燮委員 改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主質問 補充質問의 이런 名稱이나 概念을 없애고 모든 委員이 正規質問으로써 30分 이내로 하되 어느 黨이 되든간에 첫번째 質問者에 한해서는 10分 더 시간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共和黨에서 意見提示를 한 순서를 어느 黨이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는 幹事한테 맡겨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도저히 調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黨內에서 幹事가 충분히 의견을 收斂해서 幹事會議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正式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改議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資格으로 質問하되 第1次 質問者에게는 시간을 40分으로 더 주되 그 누가 먼저 1次 質問者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절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절충은 幹事들에게 맡겨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改議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改議가 나왔는데 討議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金文元委員 李幹事님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基本的인 것은 첫 質問者가 누가 되는 편찬인데 반드시 民主共和黨의 첫 質問者가 반드시 金大中總裁에게 첫 質問을 해야 한다는 그런 制限要素는 안 된다 이거예요. 崔圭夏씨를 첫번째 質問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것을 정확히 다시 調整하자 그거예요.

○委員長 文東煥 예. 그러면 결국 절충하자면 幹事會議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고 또 幹事會議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改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金光一委員 改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改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립니다.

○李敏燮委員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改議의 내용은 첫번째로 主質問者 補充質問 이라는 概念을 없애고 모두가 같이 正質問者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發言時間도 다같이 30分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첫번째 質問者에 限해서는 10分의 時間을 더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黨이 처음으로 質問하느냐 하는 문제는 幹事會議에다가 一任을 하되 그 所屬政黨에서는 반드시 事前協議를 거쳐서 幹事會議 決定에 異議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면 이미 合意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李敏燮委員 그 부분은 白紙化하고 다시 調整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는 改議가 명확히 다 傳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改議에 贊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舉手表決)

全員 다입니다. 그러면 改議대로 議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밖에 幹事會議에서 決議한 것을 4黨合意한 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습니다.

○金仁坤委員 아까 報告 말씀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延禧洞 갔을때 안 만나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出頭通知書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그것을 제가 報告말씀을 빠뜨렸습니다.

○金光一委員 아까 委員長께서 不出席할 것으로 豫想되는 證人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계속해서 促求하시겠다 그러셨지요? 證人에 대해서는 이미 證人召喚狀이 送達이 되었고 또 그 法外的으로 이미 幹事 두분이 前職을 감안해서 禮遇上 訪問도 했고 그 이상 어떤 方法으로 促求를 하시겠습니까?

促求是 저는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促求같은 것 해 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만들 것 없고 그냥 두었다가 出席하면 訊問하는 것이요 정당한 이유없이 不出席하면 同行命令狀을 發付하는 것이요.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促求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促求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促求한다는 것은 무슨 行爲

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늘 하는 태도와 行爲와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 幹事會議로서 특별한 行動을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會議를……

○辛卿植委員 議事進行關係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光州特委가 全國의인 生中繼를 앞둔 18日 19日 會議를 두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會議進行중에 하나가 專門委員이 있어서 우리들의 資料를 補充해 준다든지 또 여러가지 問題點을 그때 그때 심부름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特委에 專門委員이 없는 지가 한달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專門委員이 補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께서는 오늘이라도 國會議長이나 事務總長하고 상의하시라고 有能한 一사람으로서 專門委員을 빨리 配定받도록 해서 우리 委員會 運營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46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燾 太	辛 卿 植	安 榮 基
李 肯 珪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趙 榮 藏	金 泳 鎮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立法審議官 金 永 善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淳昇	崔鳳九	平和民主黨
	申河澈	金光一	統一民主黨

(11月12日字)